

위약금에 떠밀려 뱃길 제주여행 가야하나



극적구조...안도의 한숨

16일 오전 진도 관매도 앞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객들이 이날 오후 진도 팽목항으로 들어오자 자녀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과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 생존자들은 진도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안정을 취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수학여행 예약 학교들 전전긍긍

수천만원 감당못해 강행... 학부모 불안

“수학여행을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 백명의 인명 사고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수학여행 가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취소 또는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수 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광주·전남 학교는 2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가 58곳이고, 전남이 150여 곳이다.

이 중 침몰 사고 직후인 이날 안에 수학여행을 떠날 학교는 광주 10곳, 전남 17곳 등 총 27개교다.

이들 학교는 왕복 교통편 중 한 차

레는 선박을, 다른 편은 항공기를 이용한다. 일부 학교는 이미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을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광주 A중은 학부모들의 안부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18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교통편이 뱃편인 탓이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는 달리,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연기 또는 취소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때문이다.

21일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광주 B고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했지만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의 불안한 정서를 고려하면 취소나 연기가 당연하지만 위약금을 어찌할 수 없어 계획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만약 취소나 연기하면 비행기·숙박비·현지교통비 등 20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목포에서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C고와 D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는 대신 안전교육을 강화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C고 교장은 “목포에서 출발하는 선박은 사고선박보다 3배가량 커 안전하다는 게 여행사 측의 설명”이라며 “여행사 측이 알아서 연기해주면 모를까 학교가 먼저 결정하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도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학여행 때 학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 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일정을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장·항해사 등 신병 확보 안전 규정·항로 준수 파악

해경, 사고원인 조사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이 16일 선장과 항해사 등의 신병을 확보, 본격적인 사고원인에 조사가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선장 이모씨 등 승무원들 목포해경으로 소환, 사고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이평연 총괄안전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인력 30명을 투입했다.

해경은 항로 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확인한 결과 여객선이 사고 30분전 운항속도 19노트에서 사고 시각으로 알려진 오전 8시 52분께 8노트로 급속

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또 세월호가 운항한 항로는 평소 정상 항로로 암호 등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항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승객들이 ‘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에 따라 암호나 다른 선박과 충돌 여부 등 다각도로 조사가 예정이다.

해경은 승무원 조사와 별도로 선박에 파공 부위가 있는지 특공대원들을 해저에 투입,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를 운항하는 선장은 2명이 있으며 이씨는 운항 스케줄에 따른 배치라고 선사측은 주장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8분 해질 19시 06분 달출 21시 11분 달몰 07시 06분

미세먼지 '보통'

차차 흐려져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	12/17℃
목포	비	12/17℃
여수	비	13/16℃
나주	비	10/17℃
완도	비	12/17℃
구례	비	12/15℃
강진	비	12/17℃
해남	비	12/17℃
장흥	비	13/15℃
순천	비	12/17℃
영광	비	11/17℃
진도	비	11/17℃
전주	비	9/18℃
군산	비	8/18℃
남원	비	7/17℃
혁신도	비	12/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1.0~2.0m 주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1.5~2.5m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3:28 08:39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여수 15:34 20:4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10:18 04: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여수 22:46 16: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4/20	11/20	10/20	9/22	11/23	11/24

921명 탑승 가능 6825t급 대형 카페리 인천~제주 운항...77억 선박보험 가입

세월호는?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지난 2012년 말 국내에 도입됐다.

길이 145m·폭 22m에 6825t급 규모로 지난 1994년 4월 건조된 뒤 지난 2012년 말 10월 국내에 도입됐다.

인천~제주 운항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운항에 들어갔다. 여객 정원은 921명, 차량 180대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으며 두 명의 선장이 번갈아 운항하고 있다.

수백명에 이르는 단체 여행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중·고교 수학여행단, 등산 동호회원들의 이용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측은 기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오하마나호(6322t급) 1척 외에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추가로 투입했다.

여객선은 로얄실, 페밀리룸, 단체 여행객용 객실과 휴게실·편의점·식당·게임룸·사위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는 어떤 배?

세월호는 1994년 6월 일본 하야시네 조선소에서 건조돼 2012년 10월 국내에 도입됐다



- 선사: (주)청해진해운
- 규모: 6,825t
- 구간: 인천~제주 (425km)
- 소요시간: 13시간 30분
- 최대속력: 21노트
- 정원: 921명
- 화물수송능력: -컨테이너 200개
- 승객 130대
- 화물차 50대

운임은 로얄실(2인실)이 26만원, 6인용 페밀리룸 59만4천원, 가장 저렴한 플로어룸이 7만1000원이다.

세월호는 담보 금액 77억원의 선박보험에 가입했으며 인명피해 등의 배상책임에 대해 1인 당 3억5000만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생태휴양도시 기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위 치: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일원(장남진로하스타운내) 택지면적: 524m²~1,150m²(158평~347평), 32세대

분양가격: 84,696원/㎡(279,510원/3.3㎡)

인접 편의시설: 우드랜드 통합의료센터(2014년 착공예정), 공공형수마장(2014년 착공예정), 골프장(예정)

분양신청기간: 2014.4.24.~4.29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061)860-7601, 860-7665

※본 조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공고 2014-8 호

장흥 기산지구 전원마을 분양공고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조성을 위해 장흥군이 시행하고, 「농어촌진흥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위탁 시행하는 전원마을 주택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을 공고합니다.

- 사업의 명칭: 기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위 치: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158~347번지 일원
- 사업 시행자: 장흥군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흥읍 158번지)
- 주 소: 장흥군청 - 장흥군도청 - 장흥읍 장흥로 21,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장흥군도청을 남북으로 107

5. 분양 내역

종도	필지수	분양면적 (㎡)	필지면적 (㎡)	분양예정가격 (원/㎡당)	분양 신청률	분양방법	순위별	신청기간	추첨일시	계약 기간
단독주택	32	35,648	524	84,696원/㎡	분양 신청률 100%	순위별추첨	1, 2	2014. 04. 24(목)	2014. 04. 30. 10. 00	추후 공지
부지			~1,150	최종 분양가는 추후 확정		순위별추첨	3, 4, 5	2014. 04. 29(수)	2014. 04. 30. 11. 00	
				확정 및 감면평가 후 결정		순위별추첨	6	2014. 04. 29(수)	2014. 04. 30. 11. 30	

※ 신청일시: 평일 : 10:00 ~ 17:00,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양기간은 이양기간에 따른 등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관련 비용은 신청자에게 부담하며, 이양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분양대금의 납부

구분	계좌	계좌	계좌	비고
금액	분양대금의 10%	분양대금의 60%	최종분양가의 잔금	분양신청금에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추후결정	조성완료 후	

※ 계약에 따른 분양가 상한선 세부사항은 기본으로 작성된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기는 사업지구연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 최종분양가는 확정일부계약에 따른 중도금납부액에 의해 결정되며, 추후 결정가 후 결정한다.

7. 분양신청 및 추첨, 계약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장흥군도청을 남북으로 107 ☎ 061) 860-7601, 7665

8. 분양 조건
기 분양권을 단독주택 용지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미분양지구역적용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지정구역 내로 건축하며, 미분양구역과 조화·조응하도록 하고, 분양계약에서 이의사항은 분묘묘지, 분묘묘지, 분묘묘지 등이다.

9.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제1순위: 「공시가격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장흥지구내에 분양권이 인정된 분묘묘지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환토지개발 대상자
제2순위: 「공시가격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장흥지구내에 분양권이 인정된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된 자(단, 대지의 경우 90제곱미터 이상, 대지 이외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인도만 경우에 한한다)

2014년 4월 17일

KF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